탐욕의 경제학: 한국사회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위기[94)]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주류 경제학은 전체 경제학 논리전개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개인이익 추구 가정에 대하여 매우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 인간 모형이 가지고 있는 현실모순, 즉 실질적인 인간의 행동동기나 도덕적 추구라는 이상과는 매우 다른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의 객관성(positiveness)과 실증주의적 방법론적 철학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한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현실세계에 대한 예측력에 있다고 봄으로써 경제학의 가치판단과의 관련성, 사회적 가치판단에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가치판단과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for a given income distribution, the economist's job is to recommend policy actions to move the economy toward efficiency without hurting anyone's welfare, while it is someone else' job - the politician? the expert in social justice? - to determine what the income distribution ought to be"(Zajac, 1985, Moulin 1995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의 일반적인 입장에 대하여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재분배정책)와 경제의 효율성 문제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Moulin 1995 재인용, Atkinson and Stiglitz, 1980, Starrett, 1988)에 더 나아가서 Moulin(1995)은 상품배분(goods allocation)에 – 공동자산과 개인자산 모두 해당 –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와 분배적 정의의 문제, 그리고 이들 인센티브간의 양립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류 복지경제학에서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효율성과 분배적 정의의 양분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와 분배적 정의가 불가분의 상호연관, 영향의 관계에 있

94) 본 연구의 1장, 2장과 결론 부분은 2003. 3.28. 기학연 경제분과 모임에서 working paper로 발표한 자료임.

다면 주류경제학이 과학성, 객관성을 근거로 경제학의 가치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관만을 추구해 온 것은 반대로 분배적 정의라는 가치관은 오히려 침해되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서는 경제학이 주장해온 가치판단이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학은 분명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그 효율성과 다른 사회적 가치관이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는 경제학은 어떠한 선택을 추천하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 사실 대부분의 의사결정에는 경제적 효율성과 다른 가치관간의 가치선택을 필요로 한다 – 적어도 경제학은 단순히 사회정의가나 정치가가 이를 정해야 한다고 면피할 수 없다. 오히려 많은 경우 경제학자들은 암묵적 혹은 직설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를 추구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 추진을 위해 다른 가치관의 희생을 요구한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현대사회는 분명 진보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있다. 하웃쯔바르트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에서 역사적, 철학적 관점으로 현대사회의 진보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한 것과 같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명백히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 돈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경제학은 이러한 시대적 사조와 현대 사회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상호강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심 이데올로기이며 경제학의 기본 철학인 경제적 효율성, 성장 이데올로기,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어떻게 사회의 다른 가치관을 저해해 왔는지에 대하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가 분배적 정의와 상충된다고 말하는 기존의 경제학적 반대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가 분배적 정의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공동체적 가치라는 다른 가치관 축을 어떻게 훼손시켰는가를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연구되어온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우리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자료들과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은 효율성 추구라는 가치관에 덧붙여 공동체적 추구라는 가치관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추구들은 경제적 정의라는 테두리(Constraint)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경제학의 기본틀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진보이데올로기, 물질주의의 확산과 공동체의 위기

이 장에서는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진보이데올로기, 물질주의, 개인의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물질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증폭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틀 속에서 물질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이 어떻게 인간과 가족, 사회라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리학, 사회학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현대 사회와 주류경제학이 선택한 경제적 효율성, 돈에 대한 사랑의 추구가 가져 온 공동사회의 붕괴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1. 진보 이데올로기와 최근의 물질주의의 확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질주의의 추구에 대한 종교적인, 윤리적인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과거의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부의 추구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물질주의 추구라는 가치관은 명예와 지식의 추구, 공동체적 사랑과 유대라는 가치관에 후순위의 역할만을 담당하였거나 봉건적 위계질서 속에서 갇혀 있었지만 현대 사회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타파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이러한 가치관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 구사회주의 국가에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와 진보이데올로기가 중세시대의 가치관을 넘어 현대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핵심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하웃쯔바르트(자본주의와 진보사상, 1989)는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진보주의 사상이 서구문화에 자리잡기까지 중세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사상들이 타파되고 대체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교회와 천국, 종교라는 장벽과 운명과 섭리의 사상으로부터 자기방임과 개인의 자유사상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계몽주의가 바라 본 인간의 이상사회 실현이라는 진보 동인(motive)이 사회를 움직인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효용과 도덕의 융합에서 어떻게 공리주의 도덕철학이 인간의 행복이 물질적 생산량에 비례한다는, 이전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철학을 사회의 중심철학으로 자리잡게 하였는지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중세의 종교적인 굴레를 벗어나 – 중세의 부정의와 부패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경제와 정치체계로 발전하여 왔지만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30년간 세계화의 물결과 탈냉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붕괴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얻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 더 그라프는 어플루엔자(2002)에서 '카터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표현으로

1970년대 말부터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소비와 물질주의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1979년에 행한 그의 유명한 '국민병 national malasie' 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했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 방종과 소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어플루엔자의 확산에 맞서 미국의 대통령이 취한 용기 있는 저항으로는 마지막이었다. …. 역사학자 데이비드 샤이는 이렇게 말한다. "지미카터가 패배하는 데는 그가 경제성장과 자본 개발이라는 높고, 넓고, 멋진 개념이 현대 미국의 정신에 얼마나 깊이 자리잡았는지 알아채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이후 세금인하를 통한 소비촉진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요창출의 시대가 열렸다고 애기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팽창한 광고산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1980년대 이후의 소비주의, 물질주의 확산을 부추킨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광고의 확산을 지목하고 있다. 1913년 헨리포드의 T형 승용차가 생산된 이후 기업들이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심리학을 동원하며 성장한 광고산업은 1950년대 텔레비전 보급확대로 강력한 매체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대전 이전, 혹은 1980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물질주의 문명의 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물질주의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1880년대 백화점의 도입으로 소비조장의 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서도 물질주의 문명의 결국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존 더 그라프 외 어플루엔자, 2002)

"역사가 데이비드 샤이는 이렇게 말한다, "19세기말 단순한 삶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되살아났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자기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제멋대로 발전하게 내버려두면 결국은 타락한 문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진심이었다…. 심지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잡지 '여성가정저널' 조차도 그 시기에는 단순한 삶을 장려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임금 보다 삶의 질을 위한 노동시간의 확보의 선호, 세계대전 가운데서의 파시즘과 부정의에 대한 저항, 흑인 인권운동, 1964년 버클리 대학에서 시작된 자유발언운동(Free Speech Movement) 등 물질주의에 대한 저항과 정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열망은 미국역사 속에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정의와 선에 대한 가치관의 중요성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물질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UCLA/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은 1965년부터 매년 25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물질적인 풍요를 지적한 비율은 1970년 39%에서 1998년 74%로 높아진다. 반면에 인생의 의미있는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70%에서 40%로 줄어들어 이 시기 동안에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David G. Myers, 2000, American Paradox: Spiritual hunger in an age of plenty)

현대 사회가 진보 이데올로기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현재 빈곤선은 실질개념으로 파악할 때 미국의 과거 100년전의 가장 부유한 계층 10%이 누렸던 수준과 같은 부를 누리고 있다(Fogel, Robert William, 2000, The Fourth great awakening and the future of egalitarianism). 이러한 부유속에서도 미국사회는 10년에 한번 겪고 있는 -1정도의 경기침체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점점 더 큰 세력을 얻고 있는 사상은 경제 우선의 사상, 효율성과 성장,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는 사상이며 이는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적인 철학과 개인 자유주의의 사상이 바탕이 된 물질주의 이데올로기는 어느 사회에나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다. 사회는 사회적 유대의 결속,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많은 경우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희생해 왔으며 공동체의 가치관을 우선시해 왔던 것이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가치관은 분명 봉건주의적 사회가 갖고 있던 계급세습의 부정의한 체제를 개혁하였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물질주의적 쾌락주의가 극단적으로 강조되면서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파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질주의 이데올로기의 추구,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Homo Economicus)은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듯이 가치중립적인 인간관이 아니며 다음 절들에서 살펴보듯이 필연적으로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2. 물질주의의 추구와 개인의 붕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전도서 5:9)"

물질주의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물질주의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Belk(1985)는 물질주의를 소비에 기초한 특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물질적 소유를 삶의 만족에 중요한 원천으로 믿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Richins(1990)은 특성주의적 물질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물질주의는 특성 뿐 아니라 태도, 행동, 가치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귀연, 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그렇다면 물질적 소유를 삶의 만족으로 보고 자신의 태도, 행동, 가치의 요소를 결정짓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소유한 개인은 만족하고 있는가? 위의 인용한 전도서를 보면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 연구결과들도 이 전도서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orld Value Survey(1990-91)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관적인 행복은 국가의 부의 수준과 정(正)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1인당 GNP가 8,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만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경제적 성장은 주관적 행복 index를 더 이상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사회가 희소성(scarcity)에서 안전성(security)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단 빈곤을 면하게 되면 경제적 부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전반에 대부분 빈곤과 기아문제가 해결된 부요한 국가들,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극빈계층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임금과 행복사이에 거의 무시할만한 연관성만이 존재하고 있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Ronald Inglehart).

Forbes가 선정한 100대 미국부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이들의 행복지수는 전체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는 진정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49명가운데 4/5는 돈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애기한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Ed Diener). 모든 사람들이 4천 평방미터 집에 사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2천평방미터 집에 사는 사회보다 결코 더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삶의 환경은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무시할만한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Richard Kammann). 이는 심리학에서의 Adaptation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한 큰 사건이나 사고와 같은 큰 사고에도 상당한 적응력을 갖고 있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람들의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David G. Myers, 2000).

미국사회는 물질적으로 획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반대로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에서 매년 실시하는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57년부터 1998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 가까이 실질개념으로 늘었지만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30%로 줄어들었다(David G. Myers, 2000).

최근의 물질적 소유의 확산이 행복을 크게 증진시키지 못하였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들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훼손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세계대전이후 미국인들은 심리적 우울증이 10배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한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의 국가에서 전후에 태어난 25세 인구와 전쟁전 세대인 75세 인구의 우울증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젊은 계층의 우울증은 모든 현대세계에서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우울증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현대의 젊은 계층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반면 행복지수는 약간 덜 하며, 우울증의 확률은 크게 높다. 여기에 세배 가량 높아진 청년 자살률과 사회적 불안정은 이러한 지표를 더욱 확고히 말해 준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Martin Seligman).

3. 물질주의의 추구와 가족의 붕괴

물질주의 가치관의 추구는 개인의 붕괴를 통하여 가족의 붕괴를 초래한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자신의 물질적 소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자기 이익(self-interest)의 추구라는 점에서 공동체에 반대되는 개인주의와 상호강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이익추구와 물질주의의 추구는 공동체, 특히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며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 혹은 방관, 극단적으로는 배척현상마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 이기주의의 추구는 자신의 이익의 희생이 수반되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헌신과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족의 붕괴를 낳게 된다.

물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의 추구는 다양한 형태로 가족간의 유대관계의 이완 내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디모데 후서는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디후 3:2)"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돈(Mammon)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돈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방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일에 대한 시간투자, 혹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시간소비로 인하여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가장 만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간의 유대를 위한 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 수고, 희생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가족간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풍조는 특히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심화된다. 이러한 경우 자기 희생을 참지 못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높아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즉 가족에 대한 사랑과 시간투자의 감소가 가족간의 유대관계 약화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

과관계는 실제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발현일 수도 있다. 결혼과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노력이 없다면 결혼 대신에 동거와 같은 새로운 가족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물질주의의 추구가 어떻게 개인의 성향을 개인주의화하였으며 인간상호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의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 왔다. 물질주의에 대한 최상의 가치 우선순위는 관계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저평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가지 가치관은 공존하기 어려우며 내부적인 가치관의 갈등관계를 유발한다고 본다. 심지어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심화는 다른 인간을 객체화(Objectation)하는데 까지 발전하여 다른 사람과 그들과의 관계를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상호작용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한다고 보고 있다(Tim Kasser, 2000,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이러한 가정들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명백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와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In sum, compared to those who care little for materialism, people who hold materialistic aims as central to their values have shorter, more conflictu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lovers, feel alienated and disconnected from others in society, and have dreams in which they move away from intimiate connections with others(Tim Kasser, 2000,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ohen의 연구결과에서는 물질주의적 개인들은 개인적 관계에서의 성격상의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Rich Ryan과 Tim Kasser이 Montana 주립대학의 2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관은 비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보다 더 단기간의 덜 긍정적이고 더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다. Ken Sheldon과 Mindy Flanagan이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인관계와 물질주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연인관계에서 보다 적대적이고 분쟁적인 것과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Shivani Khanna와 Time Kasser의 연구, McHoskey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독과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다. Tim Kasser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적인 개인은 심지어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서 조차도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Tim Kasser, 2000,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재인용). 물질주의적인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적인 가치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추구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Shalom Schwartz는 40개국의 성인과 대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중요시하는 가치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비록 물질주의를 직접적인 가치관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물질주의와 인간관계의 연관성에 대하여 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해 준다. 여기서 물질주의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 부에 대한 가치, 명성과 성공, 야망에 대한 가치는 두 가지 가치그룹과 극명한 반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관대함(benevolence)과 공동체주의(universalism)가 그것인데 관대함은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으로 정의될 수 있고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에 대한 존중, 사회정의, 세계평화, 평등사상과 포용성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개인적 유대관계와 공동체 가치관과 상호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Schwartz suggests that pursuing both materialistic values and benevolence-universalism values is likely bring about strong internal and social conflict, as "acceptance of others as equals and concern for their welfare interferes with the pursuit of one's own relative success and dominance over others"" (Tim Kasser, 2000,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재인용).

이는 왜 물질주의가 가족간의 유대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 즉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성공,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성을 추구하는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 희생, 공동체적 이익의 추구라는 가치관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같이 객체화 하기에까지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Martin Buber는 이러한 관계를 "I-It" 관계로 부르며 존엄성을 가진, 나와 똑같이 소중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I-Thou"관계와 구별하고 있다. Barry Schwartz는 이를 도구적 친구관계 "instrumental friendship"이라고 부르며 자본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친구관계는 어떤 목적과 활동을 위한 도구관계로 전락한다고 한다. Shivani Khanna와 Tim Kasser의 미국, 인도, 덴마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모든 나라에서 물질주의적인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이러한 도구적 관계로 이용하는 성향간에 상당한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McHosky의 연구결과에서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 자기중심적, 상대방에 대한 불신, cynicism, 다른 사람에 대한 도구적 조정의 특징)이 물질주의적으로 성공을 바라는 학생들에게서 강하게 발견된다고 보고된다 (Tim Kasser, 2000,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재인용).

물질주의가 개인의 유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자 연구결과들은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물질주의의 성장이 결혼의 붕괴와 동거의 증대,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범죄의 증가와 일치한다는 사회학적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Myers는 그의 책 'Spiritual Hunger in a plenty society(2000)'에서 1960년대 이후의 네가지 사회적 메가 트렌드를 정의한다. 이는 성개방(Sexual Revolution), 결혼의 감소, 어린이들의 복지감소, 장기적인 범죄율의 증가가 그것이다. 이는 몇가지 중요한 통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1960년 이후 이혼율은 두 배로 증가하였고 10대의 자살률은 3배 증가, 폭력범죄는 4배 증가, 결혼외 임신비율은 6배 증가, 동거(미래의 이혼예측지표)비율은 7배증가하였으며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은 세계대전전보다 10배 증가되었다.

저자는 네 가지 메가 트렌드를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증대와 연관시키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이 지난 40년간 물질적으로 크게 풍요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낙후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Myers는 개인주의가 가족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실증결과들에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개인주의가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약화시킴으로 개인주의의 상승과 가족의 악화가 장기적으로 상호연관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사회 심리학자인 Roy Baumeister는 현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결혼과 가족을 섬긴다기 보다도 결혼과 가족이 자기를 섬긴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인의 2/3가 단지 자녀들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Bernard Farber는 심지어 배우자와 결혼에 대하여 상시 대체가능한(permanent availability) 것으로 보는 문화현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Norval Glenn은 이러한 사회문화 속에서는 결혼과 가족관계에 필요한 희생과 투자를 어렵게 하며 결혼의 안정감이 크게 저하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차이에서도 발견된다. 보다 덜 개인주의적인 영국의 경우 미국의 이혼율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동체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과 같은 경우 매우 낮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들의 성향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형태의 동거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유대관계 보다 자신의 개인 삶에 대하여 더 많은 집착을 나타내고 자녀를 갖는 것보다 자기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이혼율이 결혼가정 보다 높게 나타난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혹자는 필자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족붕괴의 현상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들이 이미 충분히 진행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본주의적인 사회학, 인구학에서는 현재의 가족제도의 변화를 post-modern 시대의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진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족의 붕괴로 말미암는 유년기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범죄의 확산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하나 같이 가족의 변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4. 물질주의의 추구와 사회의 붕괴

물질주의의 추구로 인한 사회의 붕괴는 공동체적 유대관계의 약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과 가족의 붕괴에 따른 어린아이들의 재교육의 실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물질주의의 추구는 대인관계의 악화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보다 확대된 공동체, 시민사회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 물질주의의 추구가 가장 가까운 대인관계인 가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 보다 확대되고 덜 밀접한 관계인 공동체적 유대감과 시민사회는 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1950~60년대 이후 사람들의 공동체적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Mayers는 미국사회가 1950년대 이래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Robert Wuthrow는 이를 "loose connections"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의 상호간 대면 방문이 줄어들고 자신이 속해 있는 친밀한 그룹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독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Robert Putnam의 유명한 볼링리그 연구에서 볼링인구의 수는 1980년 이후 10% 성장한 반면 볼링리그의 수는 40% 가량 줄어들었다고 말하며 "혼자 볼링을 치는 것"은 핵화된 현대사회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와 Steven Yoish와의 연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공동체 활동들이 얼마나 크게 줄어들었는지 보고하고 있다(표 참조). 반면 우리의 시간을 더욱 많이 차지하는 것은 TV시청, 비디오 시청, 웹서핑, 컴퓨터 작업과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늘어 났지만 이는 65세이상 인구의 증대에 기인하며 1950~65년생은 봉사활동 참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투표 참여율이 떨어진 것은 새삼스러울게 없을 정도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공동체에서 상호간 유대관계는 점점 더 약화되어가는 반면 사람들은 점점 더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자기희생, 자기통제, 도덕적 의무감, 성적자제(Sexual Restraint) 등에 낮은 가치를 두고 있다. 상호간의 신뢰도 크게 줄어들었다.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상호간의 신뢰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정의나 공동선에 대한 추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이는 공동체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인하여 점점 더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Mayers는 공동체적 활동(Civic Engagement)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동체의 부의 수준, 인종구성, 교육수준을 불문하고 낮은 범죄율, 낮은 사망률, 보다 효율적인 정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공동체적 활동이 낮은 지역일수록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다(David G. Myers, 2000 재인용).

물질주의 추구가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양상은 또한 가족의 붕괴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주의 추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악화, 궁극적으로는 결혼과 가족의 쇠퇴가 가져오는 영향은 단순히 결혼 당사자의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결혼과 가족 쇠퇴의 최대 희생자인 자녀들의 재사회화, 도덕화의 부족과 정서적 불안, 그에 따른 폭력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이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 보호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올바른 도덕관의 형성, 정서적 안정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가족의 붕괴 현상이며 이혼 가정에서 파생되는 자녀의 관점에서의 가족문제는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청소년들의 주변환경이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풍요로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된 현실에 대하여 Myers(2000)의 4장 'America's Children'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저하와 이혼의 급증이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혼가정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빈곤수준이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부모들이 자녀 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에 대하여 더 중요시 하게 되는 풍조는 자녀들의 영적빈곤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녀들의 심리적 병리현상은 다양한 심리적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 가운데 우울증이 급증하고 10대 자살률이 3배 이상 증대되었다. Thomas Achenbach and Catherine Howell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6년 이후 1989년까지 심리적 치료를 요하는 미국 청소년들의 숫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정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겨줄 수 있는 아동학대와 방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Myers(2000)는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동학대와 방치는 1976년 이후 1997년까지 5배 증가된 3.2백만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결과들이 아동학대에 민감한 현시대를 반영하여 통계적 누락치가 줄어든데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아동학대와 방치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는 많은 증거들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이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방치가 발생할 확률이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정상가정(intact family)에 비하여 80%정도 더 높다는 정부보고서와 이혼과 아동학대에 대한 UN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 양부나 동거남에 의한 아동학대와 방치가 생물학적 아버지보다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Daly and Wilson(Martin Daly and Margo Wilson 보고서, David G. Myers, 2000 재인용)은 이혼가정과 재결혼가정과 정상가정을 비교연구하면서 "The clear implication: there can hardly be a better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than the renewal of marriage"라고 결론적으로 말한다.

아동학대와 방치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주목되어야 한다. Meyers(2000)는 아동학대와 방치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대상자가 아니라 아동학대나 방치의 행위자가 될 확률은 30%로 전국적인 아동학대 평균의 4배가 높은 수치라고 밝힌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즉 사회에서 깨어진 가정(broken family)이 증대할수록 아동학대와 방치가 증대되고 사회에 이러한 아동학대나 방치, 깨어진 가정을 경험한 구성원이 점점 더 많아 질수록 불행하게도 깨어진 가정과 열악한 아동환경의 악순환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깨어진 가정과 열악한 아동성장 환경은 사회적 폭력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저하와 이혼가정의 증대에 따른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방치의 증가는 결국 사회적인 청소년 폭력과 범죄의 증가로 나타난다. 1960년대 이후 1993년까지 미국의 청소년 범죄로 인한 체포 건수는 475,000에서 1.74백만으로 3배 가까이 증대된다. 미국 사회에서의 폭력성 범죄의 증가, 10대의 강력범죄 증가의 추세는 Meyers(2000)가 주장한 성의 혁명, 이혼가정의 증대, 청소년 환경의 악화와 함께 4가지 미국사회의 추세로 거론되고 있다. Meyers(2000)는 이러한 네 가지 추세가 상호간에 무관하지 않으며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에서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성장을 이러한 가족의 붕괴, 폭력적 범죄의 증가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정의 붕괴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역사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복잡한 사회과정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의 붕괴가 세대간에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악순환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가정의 붕괴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의 증대와 사회폭력의 증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가장 기본적인 가정(family)의 안정성과 항구성이 해체되고 사회안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신체적 안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Speaking at Harvard two decades later, Moynihan was more persuaded than ever: "From the wild Irish slums of the 19thcentury Easternseaboardtotheriot-tornsuburbs of LosAngels, there is one unmistakable lesson in American history: a community that allows a large number of young men to grow up in broken families..never acquiring any stable relationship tomaleauthority,never acquiring any rational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that community asks for and get chaos(David G.Myers,2000재인용)."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출산율의 저하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선진국에서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 수준을

크게 밑도는 1.6~1.8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아동의 수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 2.1명을 크게 밑돎으로써 향후 선진국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출산율의 하락은 평균수명의 상승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노령인구의 장수에 의해서 선진국 사회의 고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직 사회의 고령화 추세의 영향을 크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질주의와 산업사회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2.1 이하로 하락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은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머 세대 이후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고령인구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생의 활동이 증가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모들의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증대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은 선진국 자본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운데 하나이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추구로 발생한 청년인구의 감소는 끊임 없는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매우 모순된 현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던 경제성장과 진보 이데올로기가 물질주의와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인 바로 그 '진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자승자박의 결과일 수 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중국 등은 2050년경에는 인구의 40%이상이 65세이상 고령인구로 구성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띄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불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추세의 하나로 이민을 들고 있는데 선진국의 부족한 청년인력을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의 청년인구의 이민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이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로마사회가 현대의 고령화 사회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고령사회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로마사회 역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쾌락의 물질주의와 타락, 가정의 붕괴를 경험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이들이 고령사회 였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역시 물질주의의 추구로 가정의 붕괴와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고령사회화 하였으며 이를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로 점차 대체해, 즉 이민으로 해결하였으나 이는 로마의 시민정신의 퇴락, 군대의 약화를 가져오며 로마제국의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한국의 물질주의와 공동체의 위기

III.1. 가치관의 변화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34. ○○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 N=1500)

▶ 건강	57.1
▶ 행복한 가정	26.3
▶ 좋은 인간관계	4.1
▶ 경제적 풍요	3.1
▶ 자신의 능력 계발	3.0
▶ 사회적 성공	2.9
▶ 정신적 성숙	2.1
▶ 기타	1.5
합 계	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개인과 가정)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7.1%)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을 지적했고, 26.3%가 '행복한 가정'을 지적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한 기타 항목에 대한 지적률은 각기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강'에 대한 지적은 응답자들의 연령은 높아질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은 낮을수록 지적률이 높아지고 있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지적률이 약 20% 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별로는 농/임/수산업자와 주부의 지적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지적률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서 높으며, 자영업자층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좋은 인간관계', '자신의 능력 개발', '사회적 성공', '정신적 성숙' 등에 대해서는 특히 학생 응답자층의 지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1)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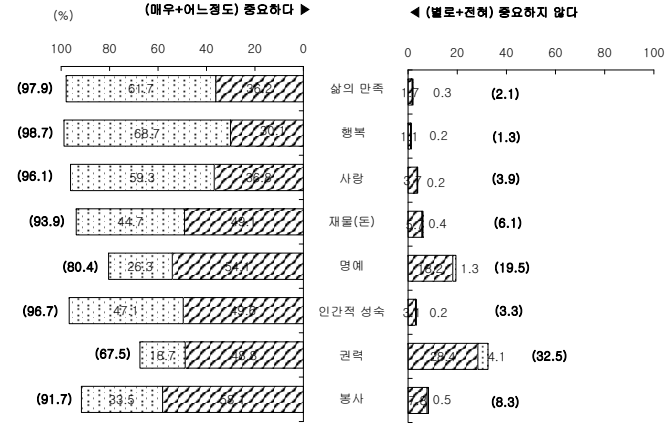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건강'이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의 행복' 14.1%, '경제적 풍요' 6.6%의 순으로 응답함.

<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단위%)

문항	2001년
건강	68.4
가정의 행복	14.1
경제적 풍요	6.6
자신의 능력개발	4.7
사회적 성공	3.3
좋은 인간관계	0.9
정신적인 성숙	1.1
여가/취미생활	0.6
이성과의 사랑	0.1
지식/학식	0.0
기타	0.2
합계	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1),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개인/가정 부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예상하는 일반적인 항목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각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다만 권력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중요도 부여가 낮았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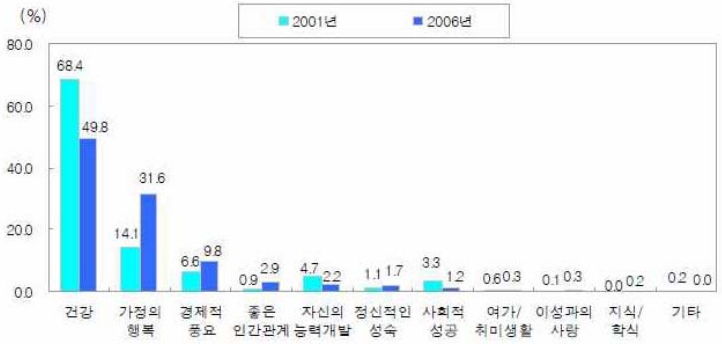


[그림] 개인 가치관(분야별)

(200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 _____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건강'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의 행복' 31.6%, '경제적 풍요' 9.8%의 순으로 응답함.
'좋은 인간관계', '자신의 능력개발', '정신적 성숙', '사회적 성공', '여가/취미생활', '이성과의 사랑', '지식/학식'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낮게 나타남.
2001년에 비해 '건강'이라는 응답은 18.6% 감소한 반면, '가정의 행복'은 17.5%, '경제적 풍요'는 3.2% 증가함.



출처 : 국정홍보처(200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응답은 여자가 52.6%로 남자(47.0%)보다 다소 높고, 연령이 높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높으며, 농어민(68.1%) 층에서 높게 나타남.
'가정의 행복'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30대(38.6%), 반전문/기술직(38.8%) 및 사무직(38.4%)에서 높음.

(2008)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 _____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건강'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의 행복' 27.1%, '경제적 풍요' 9.4% 등의 순임.
'자신의 능력개발', '사회적 성공', '좋은 인간관계', '정신적 성숙', '여가/취미생활', '이성과의 사랑', '지식/학식'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낮음.
2006년보다 '건강'이라는 응답이 약간 증가하고,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 풍요'라는 응답이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 없음.

<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단위: %)

문항	2001년	2006년	**2008년**
건강	68.4	49.8	**52.1**
가정의 행복	14.1	31.6	**27.1**
경제적 풍요	6.6	9.8	**9.4**
자신의 능력개발	4.7	2.2	**4.4**
사회적 성공	3.3	1.2	**2.2**
좋은 인간관계	0.9	2.9	**2.0**
정신적인 성숙	1.1	1.7	**1.8**
여가/취미생활	0.6	0.3	**0.5**
이성과의 사랑	0.1	0.3	**0.2**
지식/학식	0.0	0.2	**0.3**
기타	0.2	0.0	**0.0**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라는 응답은 여자가 55.9%로 남자(48.2%)보다 다소 높고, 연령이 높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높으며, 농어민(77.5%)에서 높음.
'가정의 행복'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30대(36.4%) △관리/전문직(31.7%) 및 반전문/기술직(31.0%)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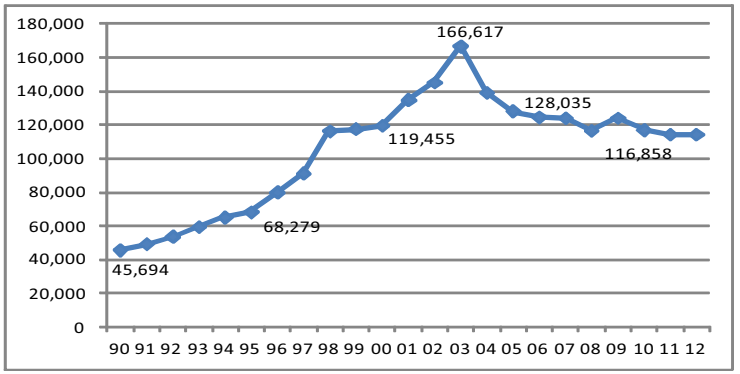
<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96~'08)

(단위: %)

문항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
건강	57.1	68.4	49.8	52.1
가정의 행복	26.3	14.1	31.6	27.1
경제적 풍요	3.1	6.6	9.8	9.4
자신의 능력개발	3.0	4.7	2.2	4.4
사회적 성공	2.9	3.3	1.2	2.2
좋은 인간관계	4.1	0.9	2.9	2.0
정신적인 성숙	2.1	1.1	1.7	1.8
여가/취미생활	-	0.6	0.3	0.5
이성과의 사랑	-	0.1	0.3	0.2
지식/학식	-	0.0	0.2	0.3
기타	1.5	0.2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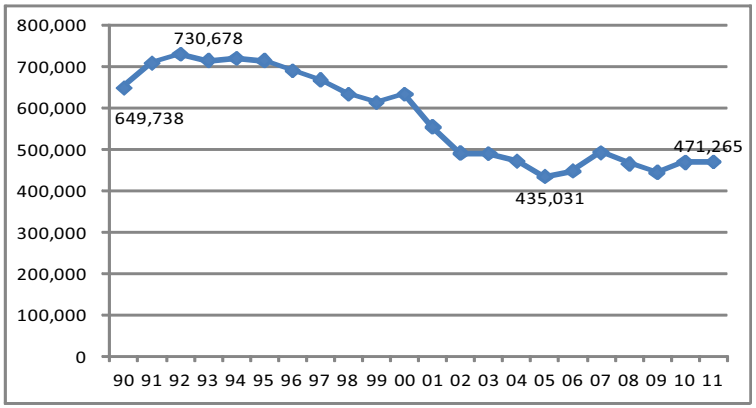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1998, 2001, 2006, 2008),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종합

III.2. 한국사회의 공동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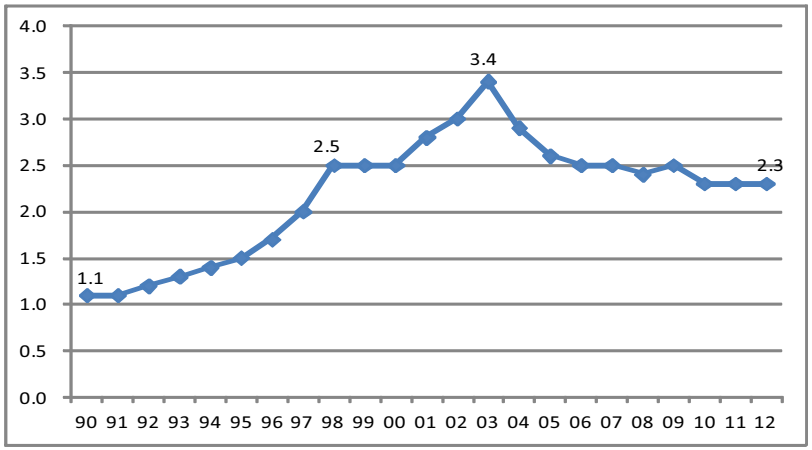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그림] 이혼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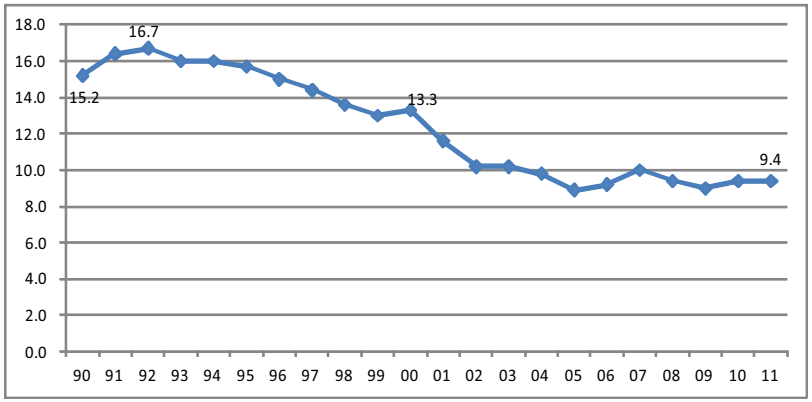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그림] 출생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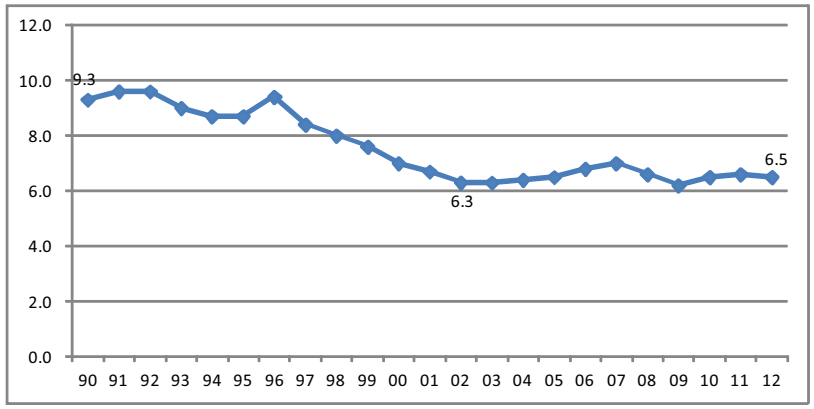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그림] 조이혼율 변화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그림] 조출생률 변화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그림] 조혼인율 변화

<표> 이혼에 대한 견해-15세 이상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것이 좋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	모르겠다
1998	19.0	41.3	29.1	7.4	1.2	2.0
2002	16.9	41.5	32.9	5.9	0.7	2.2
2006	19.5	40.4	29.4	-	6.8	4.0
2008	16.8	41.8	31.9	-	7.1	2.4
2010	15.9	40.7	33.4	-	7.7	2.4
2012	13.3	35.4	37.8	-	10.9	2.7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표> 이혼에 대한 견해-동부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것이 좋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	모르겠다
1998	17.1	40.9	30.9	7.8	1.3	2.0
2002	15.4	41.1	34.5	6.1	0.7	2.2
2006	17.7	40.6	30.8	-	6.8	4.0
2008	15.2	41.9	33.0	-	7.4	2.4
2010	14.6	40.5	34.7	-	7.8	2.4
2012	11.8	35.1	39.3	-	11.1	2.7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표> 이혼에 대한 견해-읍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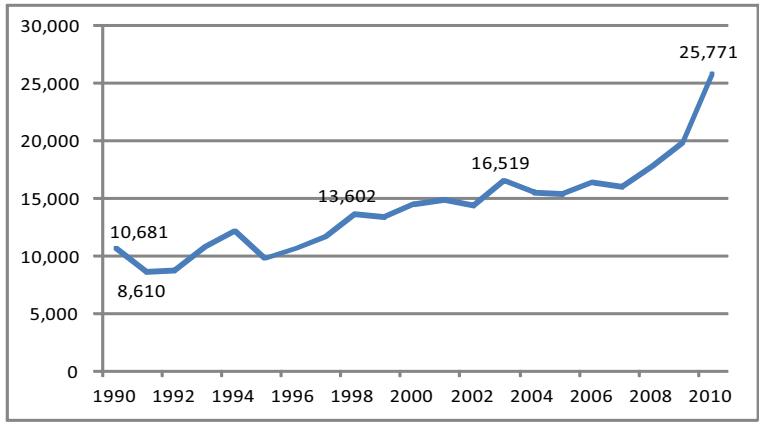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것이 좋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	모르겠다
1998	27.2	43.0	21.1	5.6	1.0	2.1
2002	23.0	43.5	26.0	4.7	0.7	2.0
2006	27.7	39.2	22.7	-	6.5	3.9
2008	23.6	41.4	27.1	-	5.5	2.4
2010	21.6	41.7	27.4	-	6.9	2.4
2012	20.1	36.8	30.3	-	10.1	2.7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표> 이혼에 대한 견해-대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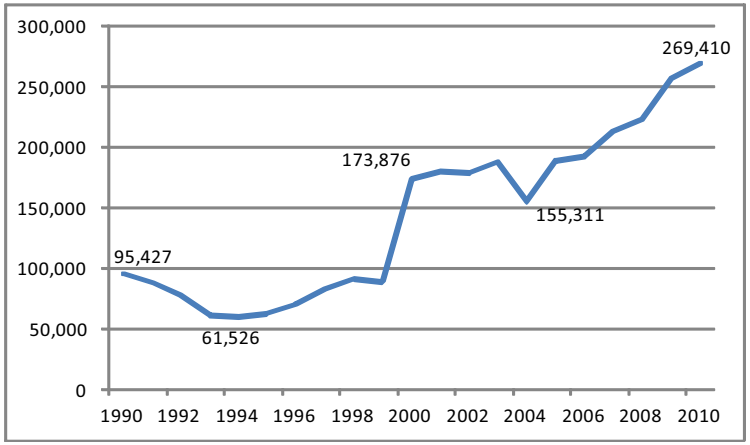
	어떤 이유라도 해선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것이 좋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	모르겠다
1998	13.6	42.7	33.8	8.2	1.1	0.7
2002	11.3	42.9	38.1	5.9	0.6	1.2
2006	14.4	42.4	34.0	-	6.5	2.7
2008	11.3	43.1	36.9	-	7.1	1.7
2010	10.7	40.2	39.4	-	8.0	1.6
2012	8.7	34.9	43.4	-	11.4	1.6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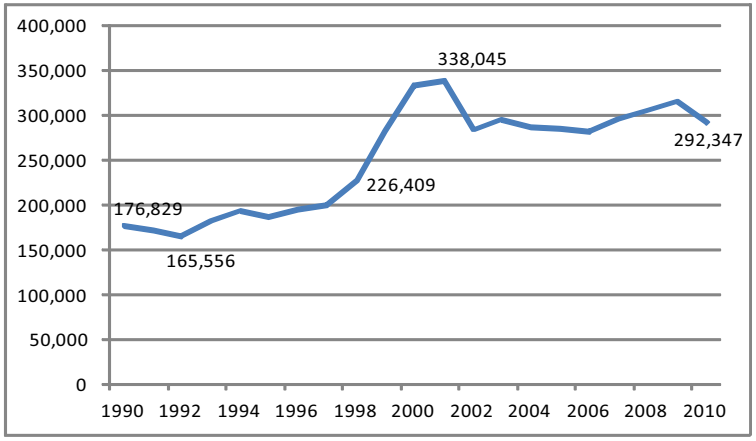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강력범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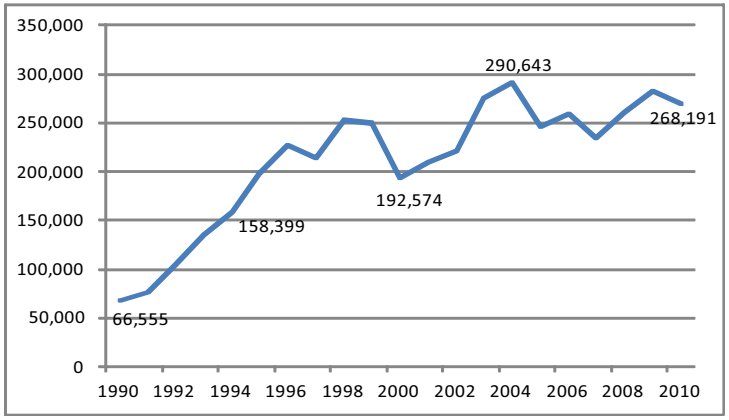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절도범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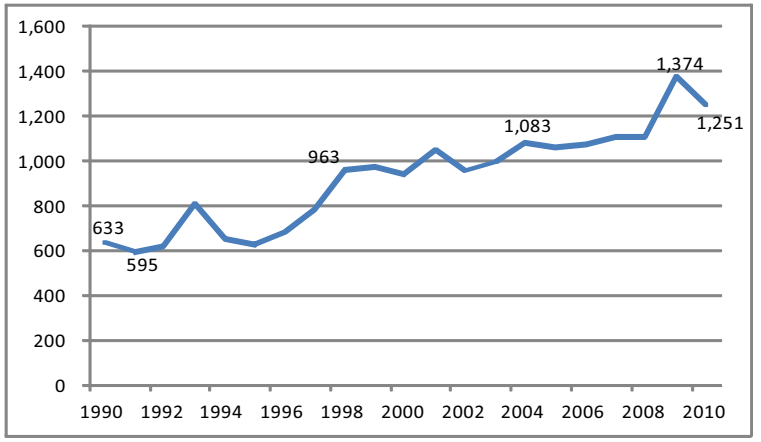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폭력범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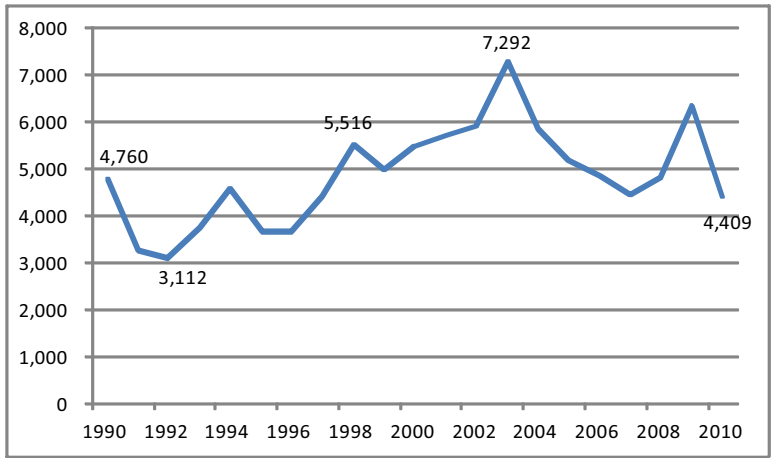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지능범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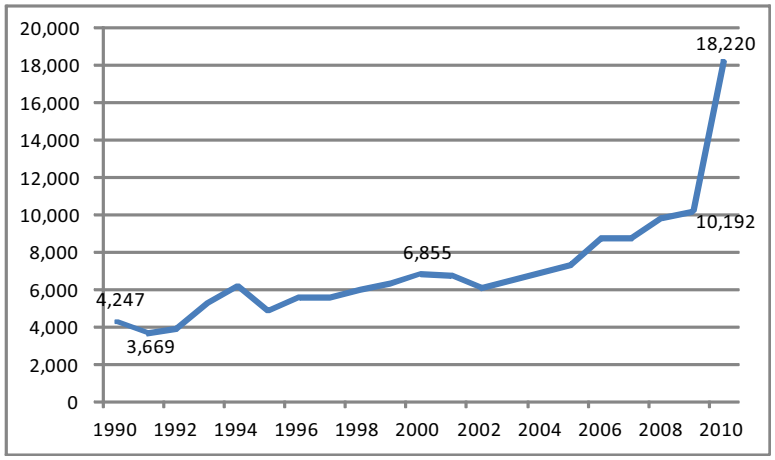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강력범죄 중 살인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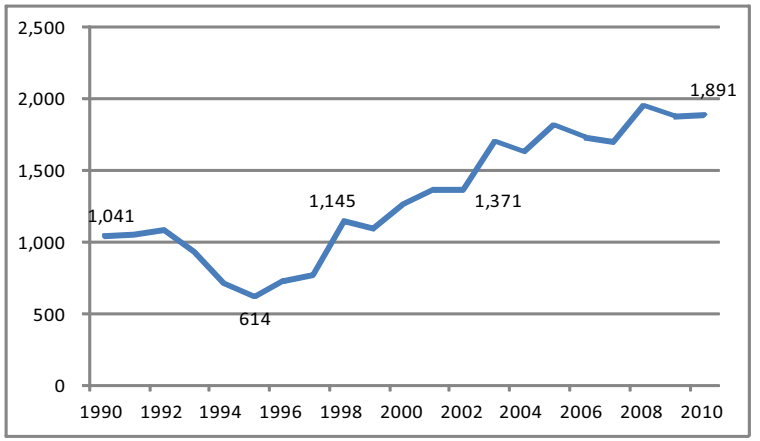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강력범죄 중 강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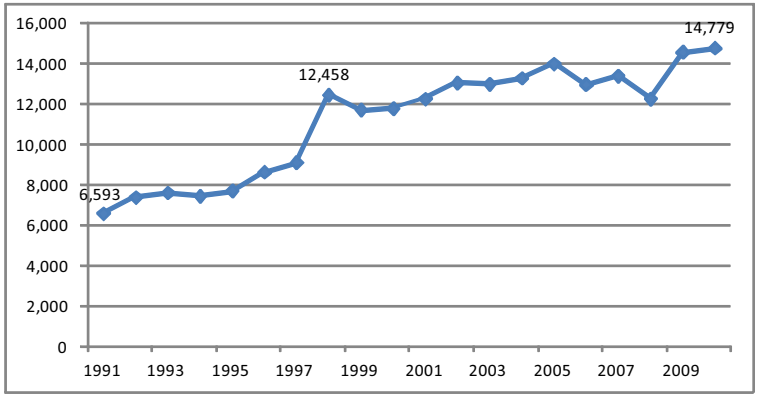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강력범죄 중 강간 발생 건수



출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강력범죄 중 방화 발생 건수



출처: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그림] 자살자 연도별 그래프

<표> 정신장애 일년유병율 비교 (성과 연령의 보정)

	2001		2006		2011	
	유병율 (%)	표준오차 (%)	유병율 (%)	표준오차 (%)	유병율 (%)	표준오차 (%)
알코올사용장애	6.80	0.30	5.60	0.60	4.40	0.50
알코올의존	4.30	0.30	3.20	0.50	2.20	0.40
알코올남용	2.50	0.20	2.50	0.20	2.10	0.40
니코틴사용장애	6.70	0.30	6.00	0.60	4.00	0.50
니코틴의존	6.00	0.30	5.10	0.50	3.10	0.40
니코틴금단	1.50	0.20	1.90	0.20	1.60	0.30
정신병적 장애	0.50	0.10	0.30	0.10	0.40	0.20
정신분열성 장애	0.20	0.10	0.10	0.10	0.15	0.10
정신분열형장애	0.10	0.00	0.04	0.02	–	–
망상장애	0.00	0.00	–	–	–	–
단기정신병적장애	0.30	0.10	0.20	0.10	0.20	0.10
기분장애	2.20	0.20	3.00	0.30	3.60	0.50
주요우울장애	**1.80**	**0.20**	**2.50**	**0.30**	**3.10**	**0.40**
기분부전장애	0.40	0.10	0.30	0.10	0.40	0.20
양극성장애	0.20	0.10	0.30	0.10	0.20	0.10
불안장애	6.10	0.30	5.00	0.40	6.80	0.60
강박장애	0.50	0.10	0.50	0.10	0.60	0.20
외상후스트레스장애	0.60	0.10	0.70	0.10	0.60	0.20
공황장애	0.20	0.10	0.10	0.00	0.20	0.10
광장공포증	0.30	0.10	0.20	0.10	0.30	0.10
사회공포증	0.20	0.10	0.40	0.10	0.30	0.10
범불안장애	1.00	0.10	0.30	0.10	1.00	0.30
특정공포증	4.10	0.30	3.40	0.30	4.80	0.50
섭식장애	0.10	0.00	0.00	0.00	0.10	0.10
신경성 식욕부진증	0.00	0.00	–	–	–	–
신경성 대식증	0.00	0.00	0.00	0.00	0.10	0.10
신체형장애	0.50	0.10	1.00	0.20	1.30	0.30
신체화 장애	0.00	0.00	0.02	0.00	0.00	0.00
전환장애	0.10	0.00	0.30	0.10	0.50	0.20
동통장애	0.20	0.10	0.20	0.10	0.40	0.20
건강염려증	0.20	0.10	0.50	0.10	0.60	0.20
모든 정신장애	19.00	0.50	17.10	1.30	16.00	0.90
모든 정신장애 (담배사용장애 제외)	14.40	0.50	12.90	1.10	13.50	0.90
모든 정신장애 (담배, 알코올사용장애 제외)	8.40	0.40	8.30	0.70	10.20	0.80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표> 정신장애 평생유병율 비교 (성과 연령의 보정)

	2001		2006		2011	
	유병율 (%)	표준오차 (%)	유병율 (%)	표준오차 (%)	유병율 (%)	표준오차 (%)
알코올사용장애	15.90	0.5	16.20	1.2	13.4	0.9
알코올의존	8.10	0.4	7.00	0.9	5.3	0.6
알코올남용	7.80	0.4	9.20	0.5	8.0	0.7
니코틴사용장애	10.30	0.4	9.00	0.7	7.2	0.7
니코틴의존	9.40	0.4	7.70	0.7	5.5	0.6
니코틴금단	2.40	0.2	2.90	0.3	3.1	0.4
정신병적 장애	1.10	0.1	0.50	0.1	0.6	0.2
정신분열성 장애	0.20	0.1	0.10	0.1	0.2	0.1
정신분열형장애	0.10	0.0	0.00	0.0	–	–
망상장애	0.00	0.0	–	–	–	–
단기정신병적장애	0.80	0.1	0.30	0.1	0.4	0.2
기분장애	4.60	0.3	6.20	0.6	7.5	0.7
주요우울장애	**4.00**	**0.3**	**5.60**	**0.5**	**6.7**	**0.6**
기분부전장애	0.50	0.1	0.50	0.1	0.8	0.2
양극성장애	0.20	0.1	0.30	0.1	0.2	0.1
불안장애	8.80	0.4	6.40	0.5	8.7	0.7
강박장애	0.80	0.1	0.60	0.1	0.7	0.2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60	0.2	1.20	0.2	1.6	0.3
공황장애	0.30	0.1	0.20	0.1	0.3	0.1
광장공포증	0.30	0.1	0.20	0.1	0.4	0.2
사회공포증	0.30	0.1	0.50	0.2	0.5	0.2
범불안장애	2.20	0.2	0.70	0.1	1.9	0.3
특정공포증	4.80	0.3	3.80	0.4	5.2	0.6
섭식장애	0.10	0.0	0.10	0.0	0.2	0.1
신경성 식욕부진증	0.00	0.0	0.00	0.0	0	0
신경성 대식증	0.10	0.0	0.10	0.0	0.1	0.1
신체형장애	0.70	0.1	1.20	0.2	1.5	0.3
신체화 장애	0.00	0.0	0.04	0.0	0	0
전환장애	0.20	0.1	0.30	0.1	0.5	0.2
동통장애	0.30	0.1	0.30	0.1	0.4	0.2
건강염려증	0.30	0.1	0.60	0.1	0.7	0.2
모든 정신장애	30.90	0.6	30.00	1.8	27.6	1.1
모든 정신장애 (담배사용장애 제외)	25.80	0.6	25.70	1.6	24.7	1.1
모든 정신장애 (담배, 알코올사용장애 제외)	12.70	0.4	12.30	1.0	14.4	0.9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Ⅳ. 결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가족의 붕괴라는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그 자본주의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주류 경제학과 무관한 것일까?

이 단원에서 전개하고자 한 주장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추구, 거시적으로는 진보 이데올로기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암묵적,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형태인 가정(family)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공동체적 가치관보다 우선시하는 개인과 사회라면 당연히 공동체의 약화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개인이 접하는 가정(family)이야말로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심리학과 사회학적 결과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추구와 미국 사회의 가정의 위기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모순되게도 물질적 가치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물질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더욱 불안하고 불만족이 확대되는 현실의 모순에 대하여 – 성경과 격언의 지혜가 이미 오래 전에 애기한 –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물질주의 추구가 가정의 붕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심리학과 사회학적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가정의 붕괴에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모든 원인으로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추구가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붕괴에 중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지만 진보적인 가족학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가족제도는 과거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된 것과 같이 post-nuclear family형태가 나타나는 진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참으로 통탄해 마지 않는다. 진화라면 인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정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는 현재의 가정은 해체가정(broken family)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희생은 누구에게도 좋은 방향의 발전이라고 받아 들이기 어렵다.

물질주의 추구로 인한 가정의 붕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의 붕괴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야기되고 있는 시민사회와 참여의 약화, 가정의 붕괴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치, 그로 인한 사회폭력의 증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전반적인 아동의 심리적 불안정 증대, 그로 인한 건전한 사회화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 등에 대

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한 사회 공동체의 약화는 분명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특히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그로 인한 아동 성장환경의 악화가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사회 전반이 겪을 혼란과 무질서, 가치붕괴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결과들과 뒷받침이 되는 논거들이 필요하며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 뒷받침하고자 한 것은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관이라고 애기하는 인간관인 개인의 자기 이익의 추구라는 모형이 전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가정의 붕괴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 애기한대로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자기 이익의 추구라는 목적함수만을 갖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한시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전체 사회로는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이익 추구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치판단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경제의사결정에는 공동체, 특히 가족에 대한 희생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인간은 분명 아담 이후 타락한 존재이며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돈에 대한 추구, 물질주의는 분명 인간에게 뿌리 깊은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도 각 사람에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타락한 현 세상에서도 인간에 대한 모형이 완전히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모형보다는 양심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 이중적인 인간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양심의 훈련이라고 애기하는 것과 같이 경제학이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성격의 학문이 될 수 없기에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랑을 반영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중적 인간관의 설정은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에 대한 모형과 신념은 다시 인간의 행동을 규정함으로써 자기 실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도 그러하다. 많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적 연구결과들이 경제학의 개인주의적 물질주의 인간 모형이 현대 사회의 사람에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물질주의적인 행동을 낳게 함으로써 물질주의적 인간모형에 대한 증거를 다시 확보하는 자기실현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s Frank(1988) has convincingly shown, the fact is that our beliefs about human nature help shape human nature itself, in the sense that what we think about ourselves and our possibilities determine what we aspire to become… There is growing evidence that the self-interest paradigm may be self-fulfilling: the exposed subjects come to perceive

self-interes as a normative characterization of rational behaviour and to act accordingly(Stefano Zamagni, ed., 1995, 'The Economics of Altruism')"

이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경제학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더욱 증진된다라고 보고한 심리학 연구결과로 볼 때도 그러하다. 경제학 과목을 통하여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함과 정의와 사랑의 가치관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기독교 경제학의 교육에 있어서의 목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랑과 정의, 선함의 경제학이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실현되어져 공의가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경제학에서의 개인 이익추구라는 인간관과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관과 경제행동 모형에 대한 신제도주의 학파와 경제사회학파,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인간적 경제에 대한 사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경제학이 취해야 할 경제학 인간모형과 사회학과의 연계, 방법론을 고민해보고 현대 주류 경제학을 비판해보고자 한다.

가치(Value)와 가격(Price) - 기독교적 관점에서

김유신, 이대식 (부산대 교수)

1. 가치와 가격 논의의 필요성

로빈슨은 "가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형이상학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고정시키려는 어떤 것을 찾으려 하면 단지 단어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J. Robinson, 26) 라고 한다. 이 말이 옳다면 가치는 이미 경제학에서 가격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개념이 된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의하면, 정상적인 자유 시장 경제(완전경쟁)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한계효용과 일치하고, 임금은 한계생산력과 일치한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균형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가격, 부당한 임금은 있을 수가 없다. 상품의 가격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고, 임금은 노동이 상품인 한에서는 한계생산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당할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이 한계 생산력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면, 노동력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든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착취란 것은 없는 셈이다. 상품의 가치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현실은 어떠한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품의 가격이 비싸서 생활하기 힘들고 임금이 적어서 살기가 힘들어 자살하는가 하면 고통 속에 있다. 즉 한 쪽에서는 재물이 넘쳐나 낭비와 허례로 치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격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에서는 초기자원을 인정하면 현재의 가격의 집합은 추상화된 현실에서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의 틀인 공리주의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추상화도니 현실에서 조차도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만약 부자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10%만 고통 받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들의 행복은 많이 증진되고 부자의 행복은 조금 준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체계를 통한 소득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회정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 정의는 주류 경제학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다룬다. 윤리와 정의 인간의 고통 불평등을 다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학이 human science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대한 경제 이론적 답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도 경제학, 후생경제학, 진화경제학 등이 있지만, 그 답변에는 윤리가 들어가지 않으니, 여전히 고통, 빈곤이란 개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경제외적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리카르도, 마르크스의 전통에서 보이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을 통한 잉여가치는 노동자에게 가야한다는 사상이다. 물론 이 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불명확한 경계를 인정하고, 노동의 질의 다양성, , 이미 비록 노동의 질이 다양하고, 자본의 위험성, 저축에 의한 자본의 축적이 있어 노동과 자본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노동